

고흥 밤하늘 '빛의 향연 드론쇼' 펼쳐진다

화려한 빛을 담은 대규모 드론이 올해도 고흥 밤하늘을 밝게 수놓는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4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녹동항 일원에서 전남 최초의 상설 드론공연이자 고흥군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녹동항 드론쇼'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막행사는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인사말, 축사, 기념촬영,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등 개막식과 유해

조류 퇴치용 상용 드론 시연, 드론쇼 및 해상 불꽃쇼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드론쇼에서는 2026년을 기념해 총 2026대의 드론이 군집 비행을 펼치며,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3대 비전을 형상화한 다양한 연축이 선보일 예정이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펼쳐지며, 매주 토요일은 녹동항 일원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고흥군청 앞 군민광장에서 드론쇼를

내달 4일 녹동항서 개막...10월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 상설공연 규모 대폭 확대...해상 불꽃쇼·버스킹 진행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관람객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유해조류 퇴치용 상용 드론 2대를 추가해 7대로 시연하고 상설 공연 규모도 지난해 700대에서 9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계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체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특별공연은 5월 녹동바다불꽃축제와 11월 고흥유자축제, 설·추석 명절 등에

맞춰 1000대에서 2000대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녹동항 드론쇼는 고흥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며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해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녹동항 드론쇼 관람객은

23만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2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드론쇼는 강우,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방문 전 고흥군 홈페이지,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연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지난해 드론쇼 모습

장흥, 서울서 청소년 힐링캠프...아동친화도시 조성 앞장

5월 27~29일...문화체험·정서회복 지원

장흥군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 과 경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떠나장! 흥 그루터기 힐링캠프 in 서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협

력해 추진되며, 가정 내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여행과 체험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캠프는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일원에서 진행되며, 롯데월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 맞춤형 활동이 포함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장흥군 '같이도시락' 사업

참여 가정의 청소년(2008~2016년 출생자)으로, 총 154명의 대상자 중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30명을 선발한다.

특히 이번 캠프는 청소년 간 소통과 관계 형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심리·정서 회복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참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전액이 지원돼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준비물만 별도로 준비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까지이며, 서류 심

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는 4월 16일 선정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힐링캠프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희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광양, 'AI 콘텐츠' 교육생 모집 내달 8일까지...제작·실습 과정

광양시는 4월 8일까지 '누구나 만드는 AI 콘텐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달 11~26일 주말 5일간 총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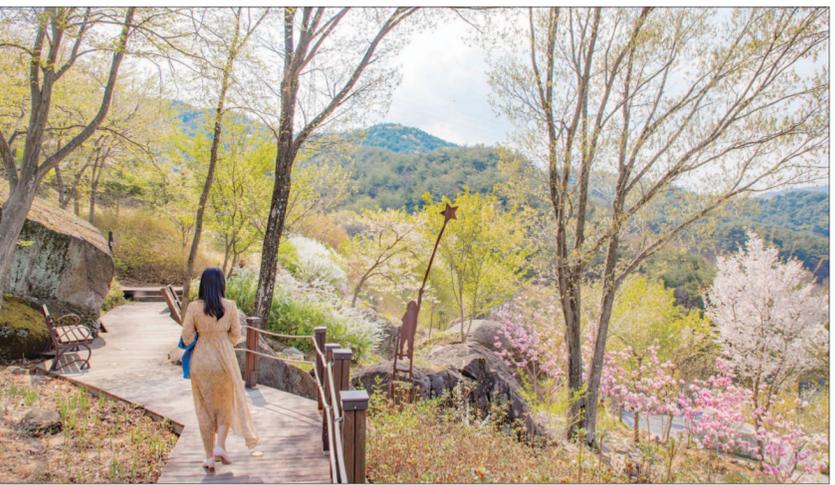
시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장인과 학생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과정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대면 교육으로 편성했다. 교육 장소는 광양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장'이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기초 이해부터 콘텐츠 제작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광양시민을 우선 선발하며, 전남도에 거주하거나 제작·재학하는 등 연고가 있는 도민 가운데 AI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정원은 25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중식도 제공된다. 신청은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누리집(https://www.innoitsa.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61-795-8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일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주말 집중 교육으로 과정을 마련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과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에 구례수목원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제공=구례군

대한민국 대표 힐링 관광지 '구례수목원'

산림청 주관 '2026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에 구례수목원이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지난 2024년부터 수목원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테마를 정해 우수한 수목원을 선정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가족과 함께 가봐야 할 수목원'을 주제로 서류 및 현장 평가, 온라인 국민 선

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전국 수목원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구례수목원이 올해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에 포함됐다.

구례수목원은 지난 2021년 5월 개장한 전남도 제1호 공립수목원으로, 54ha에 13개 테마 전시원을 갖추고 있다.

사계절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형 수목원으로 산과 숲 풍경이 어우러져 자연 관찰과 산책하기 좋은 여행코스

로 인정받고 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곡성, 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청사진 공개 마을 협동조합 방식·군민펀드 방식 비교

군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곡성형 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의 청사진이 나왔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레저문화센터 대활장에서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전문 기관인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윤 대표는 신안군 햇빛연금, 제주한림 풍력, 강원도 태백기덕산 풍력발전 등 국내 성공 사례와 독일, 덴마크 등 선진 해외 사례를 심도 있게 비교 분석했다.

특히 마을 협동조합 방식과 군민펀드 방식의 장단점을 대조하며, 곡성군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이익공유 구조를 제안했다. 재생에너

지는 지역의 공유자원임에도 그동안 개발 수익이 주민들로부터 배제되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번 운영을 통해 곡성군은 현재 조성 중인 풍력발전 사업과 향후 계획 입지 풍력발전 사업에 군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곡성군의 핵심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사전검토와 이익공유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수익모델의 기반을 닦았다.

군은 이번 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곡성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구조를 설계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gwangnam.co.kr

여수, 마스코트 '다섬이' 활용 이벤트

SNS 인증자 키링 증정...내달 3일까지 선착순 600명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마스코트 '다섬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SNS 참여형 이벤트를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선보인 '다섬이' 조형물은 오동도, 종포해양공원, 이순신광장 일원, 웅전천수공원, 여수시청 본청, 여수세계박람회장(엑스포역 건너) 등 총 6곳에 배치됐다. 주요

관광지와 시민 생활권 중심지에 설치해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형물은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의 '다섬이'를 활용해 사진 촬영 명소로 조성됐으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진행되는 SNS 인증 이벤트는 다섬이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 뒤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다섬이, #2026.9.5.-11.4.),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로 오세요!'



다섬이 조형물

등 홍보 문구를 포함해 게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폼(https://naver.me/GP29LLoe)에 접속해 인증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선착순 600명을 대상으로 한 정관 다섬이 키링 인형을 제공하며 6곳 모두 인증 시 5개, 3개소 이상 인증 시 3

개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섬이 조형물을 활용한 이번 이벤트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체험형 홍보다"며 "짧은 기간 집중적인 SNS 확산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많은 분들이 여수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도 지구를 중심으로 금도, 개도 등 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gwangnam.co.kr